

##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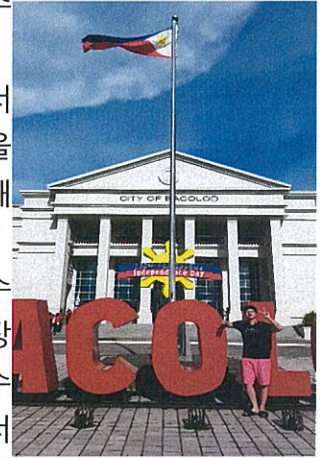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이름    | 장유익                     | 소속    | 산업공학부    |
| 학년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| 학번    | 20121118 |
| 연수 국가 | 필리핀                     | 연수 기관 | STI WNU  |
| 연수 기간 | 2018.07.03 - 2018.08.10 |       |          |

이번 여름 필리핀 Bacolod에 있는 STI WNU에서 6주 동안 어학연수를 가졌습니다.

비록 짧은 연수기간이지만 돌이켜보면 매주 마다 Activity가 있어서 매우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Activity에 가지 않았을 때도 Bacolod 시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 유명한 맛집, 재미있는 명소 등 여러 군데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



그리고 저는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에서 연수보다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 필리핀 연수는 개인 tutor와 1:1 수업이 가능한 것 때문입니다. 덕분에 수업에서 저의 English Speaking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, 지금은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6주 동안 tutor와 이야기하며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도 SNS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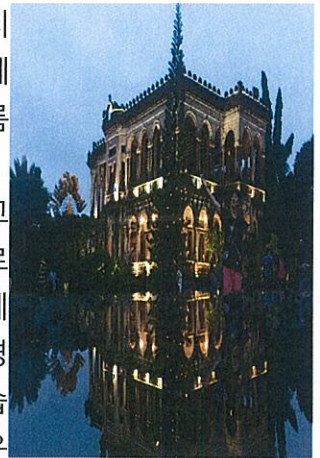


필리핀 지역이 적도에 가까워서 심하게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필리핀의 7~8월이 우기라 비가 많이 내려서 덥지

않았습니다. 오히려 STI시설과 기숙사로 지낸 Circle Inn Hotel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줬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냈습니다. 이번 여름 한국의 더위를 생각하면 피서를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

하지만 필리핀의 모든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한국보다 교통이 혼잡하여 경적으로 인해 소음이 심했고, 그곳에선 대중교통으로

버스가 아니라 Jeepney를 이용하기 때문에 Jeepney를 이용할 때 항상 내가 가는 곳을 경유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 다행히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까운



거리를 다닐 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(택시 기본요금으로 40 Peso = 한화로 약 800원) 차로 약 8분 거리에 SM mall이라는 한국의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거기까지 약 80~90 Peso로 2000원도 안되는 돈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필리핀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을 대할 때 이 점을 생각해야 했습니다.

적지 않은 돈을 내고 다녀온 연수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English Conversation Skill도 향상되어서 6주간 정말 보람찬 날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.